

2009년 11월 13일 (금) 28차 천국성령운동 간증-강상문 목사

원죄는 육적타락 이전에 마음의 타락이 먼저다. 마음과 정신이 뺏기면 영과 육이 사망으로 끌려간다. 아담도 하와도 그렇게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세상으로 루시퍼에게 끌려 간 것이다.

나 예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회복시키기 위해 왔다.

2천년전 그렇게 하늘의 씨로서 왔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육적으로 믿고 살다보니 영적으로 하는 나의 말을 말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과 표적과 시대의 말씀을 전했다 해도 그들의 관은 세상적으로 흘러서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구원할 자를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가게 했다.

세례요한도 유대인도 제자들 중에도 나의 심정을 알고 너희 선생처럼 신부된 삶을 살아주지 못했다. 나는 후 아담으로 복직의 역사를 세웠다. 그렇지만 하와의 정결한 자가 없었다. 나는 천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영원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너희 인생들에게 모두에게 전해줄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에 내가 느끼고 느낀 깊은 그 사랑을 같이 나누길 원했다.

십자가의 길,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간 것이다.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정말 사랑하므로 견디고 기도했다.

너희 선생은 그 심정과 사랑을 깨닫고서 나의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위로해 주었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사랑을 가지고 회개하여라. 내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 사랑으로 회개와 용서와 성령을 간구하여라. 너희 선생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랑을 전해 주었다.

지금은 조은이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고 있지 않느냐.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절대 내 말을 믿고 그를 통해서 주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 영이 새롭게 변하고 거듭나는 것이다. 내가 육이 있다면 너희에게 보여주고 하겠지만 영이니 어쩔 수가 없구나. 내 마음을 제발 알아다오.

나 예수는 너희 선생의 육보다 조은이보다 100배 1000배 더 너희를 사랑한다. 나에게 100% 사랑을 고백하여라.

너희 선생도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길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표상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나와 일체되어서 영적으로 심정일체 되어서 살았다.

포도나무 가지비유처럼, 돌 감람나무 접붙이는 비유처럼, 결혼한 부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복직역사를 이루었다.

그러하니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같이 역사를 할 수 있는 깨끗한 몸이 되었고 표적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너희가 그렇게 너희 선생처럼 조은이처럼 해야 한다.

조은이도 말 못할 쌓은 조건이 정말 많다. 너희들이 믿고서 성령을 받으라.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주시는 것이니까 믿고서 사랑하므로 받으라. 형제사랑과 원수 사랑을 해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그런 사랑을 하면서 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간절히 구하여라. 간절히 구하여라. 시간이 없다. 시간이 정말 없다. 마지막 끝선에서 너희 모두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사랑이다.

꼭 꼭 성령을 받으라.